



“광주시민 여러분 반가워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참가를 위해 입국한 베네수엘라 선수단이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에 도착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선수단 본진이 함께 입국한 것은 베네수엘라가 처음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베네수엘라 선수단 U대회 1호 입촌

광주유니버시아드 1주일 앞... 세계 각국 선수단 속속 광주에

선수촌 오늘 개촌... 광주시 7월 3~14일 차량 홀짝제 시행

전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선수단이 속속 광주에 도착하고 있다. 대회기간 선수들의 보급지리인 선수촌도 문을 여는 등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8·22면>

25일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서구 화정동 광주 U대회 선수촌(선수촌장 임덕호) 국가광장에서 개촌식을 갖는다. 개촌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김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유병진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위원장(광주U대회 한국선수단장) 등이 참석한다.

7월 17일까지 운영되는 선수촌은 거주

구역, 국제구역, ITO 구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22개동 2445세대가 선수촌으로 활용된다. 조직위는 개촌식에 이어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선수촌 국가광장에서 환영을 뜻하는 입촌식을 열고, 각국 대표단을 맞는다.

또 25일 남미의 베네수엘라 선수단 55명이 인천공항을 거쳐 광주로 들어오는 등 선수단의 입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발대가 아닌 선수단 공식 입국은 베네수엘라가 처음으로, 오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부 선수단(1진)이 입국했다.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관계자나 각국 선발대 대부분은 이미 광주에 도착했으며, 조직위도 손님맞이엔 한창이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베네수엘라 선수단 맞이 위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인천공항을 찾아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간단한 영접행사를 했다. 수영과 유도, 테니스, 배구 등 4개 종목에 참가하는 베

네수엘라 선수단은 메르스를 의식하지 않는 듯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밝은 표정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26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2진, 이란, 아르헨티나, 캐나다 선수단이 도착할 예정이다. 26일부터 광주U대회 특별 수송을 위해 호남고속철도(KTX) 정기열차 외에 3편을 증편, 모두 5편이 선수단 수송에 나서게 된다.

성화도 국내 봉송길에 오른 지 16일 만인 25일 전남에 첫 입성했다. 성화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전남·북을 돌아 광주로 들어온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수만명의 외지인

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3일부터 14일까지 U대회 기간 12일동안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끝 번호에 따라 홀수차는 홀수일에, 짝수차는 짝수일에 운행한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다. 광주시청과 각 구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출입차량도 예외없다. 그러나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U대회 지원 차량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대시민 홍보 캠페인과 현수막, 포스터, 가정 협조 안내문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朴, 국회법 거부권 행사 野 “국회일정 전면 중단”

정국 급속 냉각... 與, 계파갈등 속 재의결 않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날 오후 바로 재거했다. 또 재거 후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이송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정부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 충돌하게 됨은 물론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그럼에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계파 간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또 당장은 당장간 갈등이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향후 언제든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일정 전면 중

단을 선언하는 등 초강수를 두며 강력히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의원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회법 재의 추진을 위해, 기존의 원내대표 채널 외에도 국회의장 및 야당 대표 간 3차 회동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미 재의를 거부하고 나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파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메르스법’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있어서 메르스 대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문화까지 통역... 선수들의 귀와 입 돼야죠”

함께 해요! 성공 U대회

#### ④ ‘통역 봉사’ 다카이 가오리

“광주U대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 일본 선수단 통역 봉사자를 맡은 주부 다카이 가오리(49)씨는 25일 “광주를 찾은 일본 선수단이 언어 소통 때문에 어려움

을 겪지 않고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통역하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17년 전 화순으로 시집온 그는 대회기간 다문화여성, 학생 등 10여명과 함께 일본 선수단 통역 자원봉사자 역할을 맡았다. 선수단의 경기장 이동, 선수촌 등록, 인식표 발급 등 숙소가 있는 선수촌부터 경기장 입장 전까지의 선수단 통역이 다카이씨를 비롯한 통역 자원봉사자들의 몫이다.

다카이씨는 “일본 사람들은 작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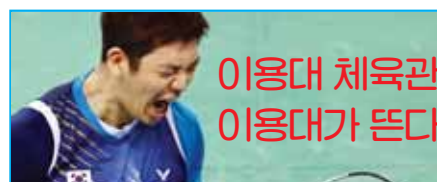
(것)에도 민감한 편이다.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오해가 없이 잘 전달해 선수들이 대회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 그리고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도록 제 몫을 다할 것”이라고 통역봉사에 나서 는 각오를 내비쳤다.

스포츠 용어 숙지 등 빈틈없는 통역 봉사를 위해 다카이씨는 2일간의 봉사자 기본교육, 동영상·인터넷 강의, 현장교육도 빠짐없이 수료했다. 이어 지난 24일 일본 선수단 선발대(5명) 선수촌 입촌과정에서 통역을 도우면서 가깝게 몸을 푼 그는 일본 선수단 입촌과 대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처음 한국에 시집왔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때 눈물 속 빠지도록 힘들었던 그 마음을 다시 끄집어내서 선수들의 귀와 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U대회 D-7 특집  
11~14면 쏙 빼서 보관  
경기장 갈 때 활용하세요



The essence of luxury.  
The all new Mercedes-Maybach S-Class